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25. 10.

울산광역시의회
ULSAN METROPOLITAN COUNCIL
(교 육 위 원 회)

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Ⅰ 개요

□ 방문목적

○ **(국제교류 초청)** 울산광역시 우호협력도시 니가타시의 시의회로부터 한일 한가위 축제에 초청받아 니가타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

○ **(의회 방문)** 일본 지방의회 운영 현황, 권한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수 정책과 조례를 분석, 응용하기 위한 자료 수집

○ **(벤치마킹)** 2026년 설립 예정인'(가칭)울산학생창의누리관'과 '(가칭)대안고등학교' 등 기관(학교) 설립 전 일본의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견학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시스템을 지닌 일본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울산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자료 탐색

□ 방문개요

○ 기　　간: 2025. 9. 24.(수)~9. 28.(일), 4박 5일

○ 방 문 국: 일본(니가타)

○ 참석인원: 총 9명 (의원 5명, 전문위원실 4명)

□ 연수단 명단 및 역할

구분				업무 및 역할	비고
소속		직위(급)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안대룡	•공무국외연수 총괄(단장)	
		부위원장	권순용	•니가타시의회와의 교류 총괄 •교육 관련 국제교류 현황 및 성과 공유	
		위원(부의장)	김종섭	•공무국외연수 계획 총괄 •한가위 축제 우수사례 확인 및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고찰	
		위원(부의장)	김수종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총괄 •빛의 숲학교 시찰 사전 준비 및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위원	문석주	•나가타시 교육제도 및 현황 파악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시찰 사전 준비 및 자연, 과학 분야 자료 수집	
	교육전문위원실	전문위원4급)	서수현	•의원 연수활동 지원 총괄 •교육위원회 소관 정책자료 수집 총괄	
		주무관(6급)	황대민	•의원 연수활동 지원, 일정관리 및 기록	
		정책지원관(6급)	지우룡	•의원 연수활동 지원, 현지 교육정책 현황 자료 수집	
		주무관(7급)	이진경	•예산 관리, 기관방문 자료 및 결과 정리	

※ 니가타시의회 「한일 한가위 축제 in 니가타」 초청,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국제교류팀 동행

Ⅱ 연수일정

날 짜	방 문 도 시	주 요 일 정
9.24.(수) 【1일차】	부산 김해공항 → 니가타 (후쿠오카 경유)	○ 부산김해국제공항 집결(12:00)
		○ 부산김해국제공항 출발(14:00)
		○ 후쿠오카국제공항 도착(14:55)
		○ 후쿠오카국제공항 출발(17:25)
		○ 니가타공항 도착(19:00)
9.25.(목) 【2일차】	니가타	○ **기관방문: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기 위한 체험형 전시물과 프로그램 풍부 **※ 문석주 의원 9. 27. 오전 조기 귀국으로 기관방문 일정 변경(9. 27. → 9. 25.)**
		○ 초청 기관방문: 니가타시의회 • 양국 교육·사회 이슈 및 우수제도 공유
9.26.(금) 【3일차】	니가타	**○ 기관방문: 빛의 숲학교** • 초·중등 대안학교로 숲과 연계된 야외 활동, 에너지 절약 및 지속가능한 생활 체험학습 실시
		○ 국제 교류행사 참석: 한일 한가위 축제 IN 니가타 2025 • 2025년 한일 한가위 축제 참석을 통해 문화교류
9.27.(토) 【4일차】	니가타	**○ 현장방문: 시나노가와 워터셔틀** • 시나노가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주변 경치를 관광하는 곳으로 태화강 신 교통수단인 선박(폰툰보트) 도입 전 벤치마킹 **※ 니가타 역사박물관이 낙뢰로 인한 파손 등으로 휴관, 방문 일정 변경(니가타 역사박물관 → 시나노가와 워터셔틀)**
9.28.(일) 【5일차】	니가타 (후쿠오카 경유) → 부산 김해공항	○ 니가타공항 출발(09:25)
		○ 후쿠오카국제공항 도착(11:15)
		○ 후쿠오카국제공항 출발(16:00)
		○ 부산김해국제공항(17:00)

Ⅲ 소요예산

□ 총 괄: 금21,919,650원

구 분			합계 (A+B+C)	항공운임 (A)	준비금 (보험료) (B)	체 제 비				경비부담 기관
						소계(C)	일 비	식 비	숙박비	
연수비용 총 합계 (D)=(A+B+C)			**21,919,650**	**9,647,060**	**215,550**	**12,057,040**	**1,050,440**	**4,285,460**	**6,721,140**	
교 육 위원회	의원6인 합계 (A) = (a)+(b)		12,891,470	5,299,900	137,490	7,454,080	627,440	2,732,580	4,094,060	울산 시의회
		의장단 2인 소계 (a)	5,661,190	2,027,000	64,650	3,569,540	282,000	1,302,840	1,984,700	
		의장단 1인	**2,830,595**	**1,013,500**	**32,325**	**1,784,770**	**141,000**	**651,420**	**992,350**	
							$40×5일 ×1/2	**$99× (4+2/3)일**	**$207×85% ×4박**	
		시의원 4인 소계 (b)	7,230,280	3,272,900	72,840	3,884,540	345,440	1,429,740	2,109,360	
		시의원 1인	**2,410,093**	**1,090,967**	**24,280**	**1,294,847**	**115,147**	**476,580**	**703,120**	
교 육 전 문 위원실	공무원 4인 합계		9,028,180	4,347,160	78,060	4,602,960	423,000	1,552,880	2,627,080	
	공무원 1인		**2,257,045**	**1,086,790**	**19,515**	**1,150,740**	**105,750**	**388,220**	**656,770**	
							$30×5일 ×1/2	**$59× (4+2/3)일**	**$137×85% ×4박**	

※ 숙박비는 할인정액(상한액의 85%)으로 산정

○ 기준환율: 1$ = 1,410원, 2025. 9. 9. 기준
○ 국가 등급: 일본 (나)등급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에 의거
○ 체제비 산정
– 일비: 5일, 차량 임차 1/2 지급
– 식비: 12식(만찬회 1식 제외)
– 숙박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비고 4호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의 85% 정액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 및「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의거
○ 항공비 산정:「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 의거
○ 준비금 산정: 여행자 보험료
○ 예산과목
– 시의원여비: 총무담당관 의원국외여비(205-04)
– 공무원여비: 총무담당관 국외업무여비(202-03)

Ⅳ 방문 내용

1.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 일　　자 : 2025. 9. 25.(목) 10:30~12:00

○ 장　　소 :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 주요내용

<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요약 >

1. 개요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은 니가타현 중부에 위치한 과학 전문 전시·체험 시설로, 자연, 생활, 산업과 관련된 수천 점의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다. “체험을 통한 과학 이해”를 기본 운영 원칙으로 하며, 전시 및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과학의 원리와 응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전시 영역

관내 전시는 네 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분된다.

가. 자연의 과학관

- 태양계, 공룡, 따오기(도키) 모형 등 자연과학 관련 전시물
- 실제 운석 및 화석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
- 실내에 조성된 너도밤나무숲 등 생태 체험 공간

나. 생활의 과학관

- 일상 속 사물과 현상을 활용한 과학적 원리 전시
- 자성 트랙을 이용한 카트 부양 체험
- 풍속, 태양에너지, 가상현실, 중력 등 생활 밀착형 전시

다. 신비한 광장

-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체험형 전시물 전개

라. 니가타현의 변화 전시관

- 산업 및 교통 발달사, 자연재해의 역사 전시
- 돌칼, 무역선 모형, 금광 관련 전시 등 지역 역사 자료 포함

3. 야외 전시물

야외 공간에는 다음과 같은 대형 전시물이 배치되어 있다.

- 로켓, 증기 기관차, 헬리콥터 실물
- 남극 관측용 설상차, 경찰 헬리콥터
- 풍차 모형 및 '뉴턴의 사과나무' 묘목

4. 플라네타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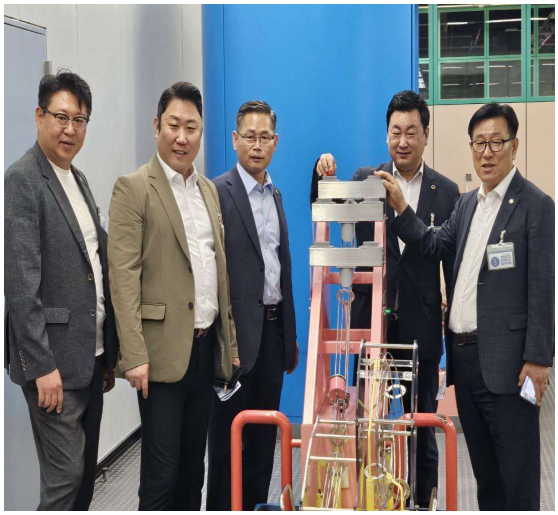
부속 플라네타리움은 일본해 지역 내 대규모 시설로, 사실적인 별빛 하늘과 천체 영상을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한다. 이는 천문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주요 교육·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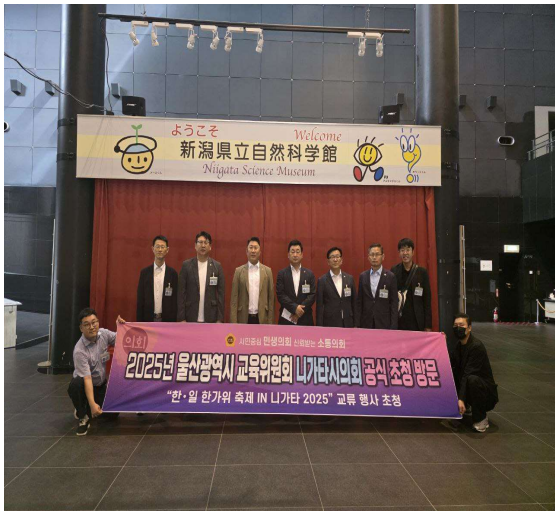
5. 울산과학관과의 비교

니가타 현립자연과학관은 자연과학, 생활과학, 산업사 및 지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 과학 전시·체험 시설이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과학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대표 과학문화 공간으로서 교육적, 문화적 가치가 크다.

울산과학관(2011년 개관)과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1981년 개관)을 비교하면, 울산과학관은 현대 과학기술과 교육프로그램 중심이며, 탐구·미래 지향적 전시가 많아 청소년 및 학교 방문자에게 도움이 된다.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은 자연과 지역 변화, 역사와 과학의 접점이 풍부하고, 체험 중심 전시가 많으며, 자연환경 재현(숲, 조류, 운석 등)이 뛰어나다. 향후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처럼 다양한 주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생, 지역주민, 관광객 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교육위원회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방문 사진 ◘





2. 니가타시의회

○ 일　　자 : **2025. 9. 25.(목) 16:00~17:30**

○ 장　　소 : **니가타시의회**

○ **주요내용**

< 니가타시의회 요약 >

1. 개요

니가타시의회는 일본 니가타시의 입법기관으로, 시 행정의 주요 정책, 예산, 조례 등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시의회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과 운영이 이루어진다.

2. 의원 구성 및 선출

가. 의원 정수: 50명

나. 선출 구역별 배정

- 북구(北區): 5명
- 동구(東區): 8명
- 중앙구(中央區): 11명
- 강남구(江南區): 4명
- 아키바구(秋葉區): 5명
- 남구(南區): 3명
- 서구(西區): 10명
- 서판구(西蒲區): 4명

다. 최근 선거 및 투표율

최근 시의회 의원 선거는 2023년 4월 9일에 실시되었으며, 정수 50명, 후보자 수 72명으로 치러졌다.

3. 조직 구조 및 기능

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 본회의(본체회의)

  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예산안·조례안·시 행정의 주요 정책 등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제안된 의안 및 청원 등을 소관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나.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 본회의 회의록, 의안 자료, 심의 결과 등이 의회 웹사이트 등에 공개된다.
- 회의 중계 또는 녹화 기능을 통해 시민이 의회 활동을 실시간 또는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
- 시의회 광보지 발행 등을 통해 조례 개정, 의원 질의 내용 등을 시민에게 전한다.

다. 의회 사무국 및 행정 지원
의회 사무국이 의회 운영 전반(위원회 운영,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중계 시스템 관리, 시민 민원 응대 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능한다.

4. 주요 활동 및 쟁점 과제

가. 예산 심의
- 매 회계연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다.

나. 도시 재개발 및 인프라 정책
- 철도망 확충, 재개발 사업 등 도심 개발 사업이 의회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다. 재난 대비 및 안전 정책
- 지진 대응에 관한 주민 부담 및 대응책 등이 의회의 논점이다.

라. 지방자치 및 주민참여 확대
- 의회의 투명성 강화, 시민 의견 수렴 절차 개선, 의정 활동 홍보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

5. 특징 및 시사점

- 의원 정수 50명은 니가타시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많은 편이며, 각 구별 배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 낮은 투표율(최근 38.47%)이 시민 참여 정도 및 의회 대표성에 대한 과제로 지적된다.
- 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참여 유도는 니가타와 울산 지방의회의 공통 과제이며, 행정과 의회의 힘의 균형, 주민 부담과 정책 타당성 사이의 조정 능력이 향후 의회의 핵심 역량으로 요구된다.

< 참석자 질의응답 내용 >

1) 한국은 교육청과 시청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의 운영 방법은?
→ 니가타시에선 교육 업무를 타 기관에서 분리 운영하지 않고, 니가타시에서 통합 운영함. 니가타시의회에는 네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문교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유, 초, 중, 고 교육정책 전반과 교육시설 정비 및 관리하며, 교육을 단독으로 하지 않고 문화, 경제 분야와 연계해서 운영함.

2) 울산은 435개의 학교에 14만여 명의 학생이 있는 광역시인데, 니가타시의 현황은?
→ 니가타시에는 시립 초, 중, 고등학교가 약 160교 있으며, 유치원은 전부 민간 유치원임.

3. 일본은 한국과 동일하게 주5일제 수업을 하지만, 일부에선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 과거에는 토요일도 정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았으나, 점차 토요일 수업은 폐지되고 주5일제가 정착되었음. 다만, 공립학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 등 주말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 일부 지역 또는 학교에서 월 1회 등으로 토요일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4. 한국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일본 사교육 현황은?
→ 한국 사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음. 일본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 고등학교 학생까지 상당수가 다니며, 특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많이 다니고 있음.

5. 울산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는데, 니가타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 사례는?
→ 니가타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음. 작년 니가타시 교육프로그램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안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제안함.

6.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로서 교육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일본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교육 관련 이슈는 어떤 것이 있고, 니가타시의회는 이에 대해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학급 통폐합, 방과후 활동 강화가 주요 교육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니가타시의회에서는 학급 축소 시 교육격차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방과후 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지역 협력 프로그램 예산 승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7. 울산은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큰 과제이며, 니가타도 비슷한 문제를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지?

→ 니가타시도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겪고 있음. 의회 차원에서는 지역 대학, 기업과 연계한 장학금 제도와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인턴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학생의 상당수가 지역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음.

8. 울산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니가타시 또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로서,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이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 니가타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니가타시의회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감면, 출산 장려금 제도 확대,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등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9. 울산은 학생들이 해외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도록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니가타시의 현황과 울산과의 교류를 할 생각이 있는지?

→ 니가타시는 국제 교류 재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과의 교류는 양 도시간의 교육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함.

◘ 니가타시의회 교육위원회 방문 사진 ◘

3. 빛의 숲학교

○ 일　　자 : **2025. 9. 26.(금) 10:30~12:00**

○ 장　　소 : **니가타시의회**

○ **주요내용**

< 빛의 숲학교 요약 >

1. 개요
   가. 이념: 모든 생명이 빛나는 배움의 장 만들기
   나. 학교 형태: 초·중등 대안학교
   다. 설립 주체: 일반사단법인 빛의 숲 학교
   라. 대표: 코바야시 히로키 (니가타시의회 의원)
   마. 개교 시기: 2025년 4월
   바. 위치: 일본 니가타시 니시칸구 이와무로 온천 지역
   사. 교육 환경: 자연 속 고택·산장 활용, 지역 유휴 건물 리모델링(식당·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

2. 교육철학
   가. 미션: 자신을 빛나게 하고, 지금을 빛나게 하는 아이를 기른다
   나. 비전: 좋아하는 일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
   다. 핵심 역량(3가지 힘)
   - 결정하는 힘: 주체적 질문과 배움을 통한 자기주도성
   - 감지하는 힘: 자연·동물과의 만남을 통한 오감 개방, 감성 발달
   - 만드는 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창작·창조의 힘

3. 주요 교육 실천 내용
   가. 5가지 실천
   - 예나플랜 교육: 연령 혼합형 협동 학습, 대화·놀이·일·행사를 통한 주체적 배움
   - 생명 순환 학습: 자연농법·동물 사육을 통한 생명의 가치 체험
   - 창작 활동: 만들기·표현 활동을 통한 자기 발견
   - 지역 연계 학습: 바다·산 등 자연을 활용하고 지역 전문가와 협력
   - 디지털·자연 융합: ICT, AI를 활용하여 디지털과 자연 연결

4. 학습 방법

가. 배움의 사이클(4단계)

나. 대화 → 공동체적 기반 형성, 문제 해결 논의

다. 놀이 → 자발적 몰입과 창의성 발현

라. 일(학습) →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학습

마. 행사 → 성과 공유, 협력 경험

< 참석자 질의응답 내용 >

1) 울산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개교한 빛의 숲학교의 설립 취지는?

→ '모든 생명이 빛나는 배움의 장'이라는 이념으로 출발했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임. 아이와 자연,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있음.

2) 대안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교사 전문성과 행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빛의 숲학교운영 방법은?

→ 정규 교사 외에도 농부, 요리사 건축가, 의사, 어부 등 지역 주민이 교육 파트너로 참여함. 다만, 시와 현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고, 주로 민간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운영을 유지함. 이 점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함.

3) 대안학교는 일반적인 공립학교와는 교육 방식에서 차이가 날텐데, 빛의 숲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 교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돕고, 필요할 때 전문가와 연결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함. 예를 들어 곤충 전문가와 함께 곤충을 채집·사육하거나, 지역 주민과 함께 가게 간판을 만드는 등 실제 체험을 통해 배우도록 지원함.

4. 일반적인 교과과정 중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학생 교육 방식은?

→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도록 도움. 여러 가지 물건 만들기, 자연이나 동물과 함께하는 법, 밭에서 키운 작물을 통한 요리 등 각자의 관심을 존중함. 이를 통해 '결정하는 힘, 감지하는 힘, 만드는 힘'이라는 세 가지 역량을 기르도록 함.

5. 울산은 대안학교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니가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 학년 구분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갈등은 있지만, 큰 폭력 문제는 없음. 대화와 협동 활동으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특징임. 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 기반 부족과 공공 지원 부재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학부모·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6. 울산의 대안학교의 경우 교과과정 중심이 아닌 주제 탐구, 토론 등의 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빛의 숲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 자연농법 체험이나 동물 돌보기 같은 '생명 순환 교육'이 만족도가 높음. 아이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로 요리를 하면서,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함. 또 지역 장인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은 학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7. 빛의 숲학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 아이가 눈을 빛내고 마음을 설레게 하며, 무언가에 열중하는 순간 "하고 싶다, 알고 싶다"는 내적 동기를 발견하게 됨. 그런 순간을 만들어 주고, 아이가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자신과 사회를 함께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빛의 숲학교 교육위원회 방문 사진 ◘

4. 한 · 일 한가위축제 in 니가타 2025

○ 일　　자 : 2025. 9. 26.(금) 18:00~21:00

○ 장　　소 : 니가타 시민예술 문화회관 류토피아 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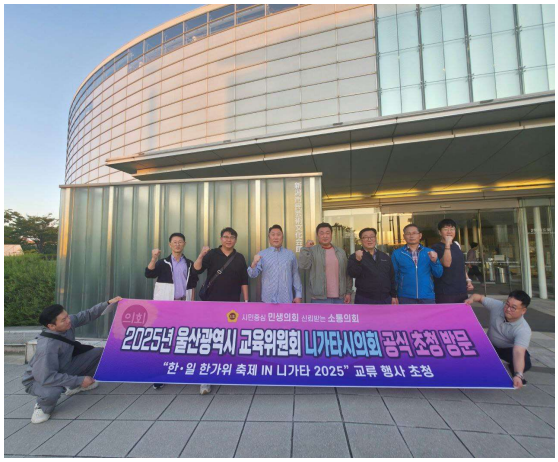
○ 주요내용

- 한국 전통공연, 태권도 공연, 한국·일본 예술단 공연
- 니가타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에 초청, 참석하여 문화교류

○ 방문 결과

- 울산시와 니가타시는 우호 협정 관계가 있으므로, 축제 참석을 통해 협력 재확인
- 울산 지역 축제나 국제교류 행사에 접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소년·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 한일 한가위 축제 방문 사진 ◘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5. 시나노가와 워터셔틀

○ 일　　자 : 2025. 9. 27.(토)

○ 장　　소 : 시나노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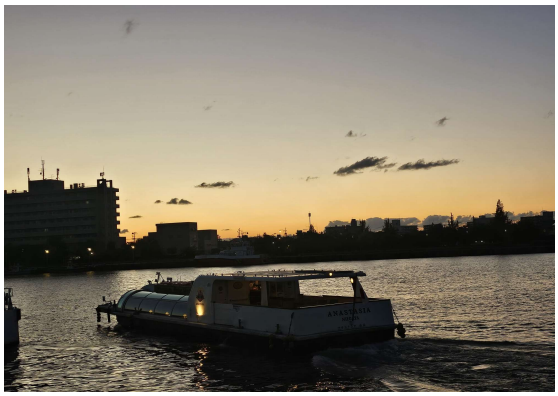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인 시나노가와를 따라 니가타시 중심부를 감상할 수 있는 선박 형태
- 지역 주민의 생활교통 운행은 실패하였으나, 도시 경관 체험을 진행

○ 방문 결과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강을 품은 도시인 울산과 비슷한 니가타시의 시나노가와 워터셔틀에서 폰툰보트에 접목할 점 모색
- 폰툰보트를 평일엔 교통형 셔틀, 주말엔 관광형 유람 보트로 운영하여 관광과 생활 교통 기능을 병행할 방안 모색

◘ 시나노가와 워터셔틀 탑승 사진 ◘



Ⅴ 총 평

□ 총 평

○ 이번 니가타시 방문은 교육·과학·문화·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울산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은 '체험을 통한 과학 이해'를 운영 원칙으로 삼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세대별 맞춤형 과학 학습을 실현하고 있다. 울산과학관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탐구형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면,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은 자연과 생활 속 과학의 체험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울산 역시 시민과 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과학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니가타시의회는 교육·경제·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정책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구조는 정책 통합성과 현장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울산시의회도 시민참여 기반을 넓히고, 교육정책을 산업·문화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형 논의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빛의 숲학교는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놀이·일·대화를 통해 스스로 배우며,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학습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교육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보여준다. 울산 대안학교 정책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여, 정서·심리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자연체험, 지역 연계, 창의·창작 중심의 교육모델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일 한가위축제는 울산시와 니가타시 간의 우호 협력을 재확인하고, 지역 문화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교류의 장이었다. 양 도시 간 문화·예술·청소년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울산 지역 축제에도 일본 예술단체 초청이나 청소년 상호 방문 프로그램 등을 접목함으로써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시나노가와 워터셔틀은 도심 속 강을 활용한 대표적인 수상관광 모델이다. 이 사례는 울산의 태화강 폰툰보트 사업 방향성에 시사점을 준다.

○ 이번 니가타시 방문은 울산의 교육·문화·환경·도시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실질적 벤치마킹의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빛나는 생태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본다.

Ⅴ 의원별 공무국외출장 후기

1. 안대룡 교육위원장

이번 일본 국외연수는 니가타시의회의 초청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방문을 시작으로 니가타시의회에서 오노 세이치로 의장님, 니가타 시의원분들과 환담을 나누었고, 올해 개교한 빛의 숲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한·일 한가위축제 in 니가타 2025'에서 울산 공연단을 응원하며 양 도시의 우호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시나노가와 워터셔틀을 타고 니가타 도시 전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지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방문 직전에는 폭발물 설치 신고 전화로 인해 방문이 취소될 뻔했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니가타 역사박물관은 낙뢰 피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둘러보며 도시가 교육과 문화, 과학, 자연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니가타시의 '빛의 숲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배움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숲을 거닐며 계절의 변화를 배우고, 스스로 정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며 토론했습니다. 그곳의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울산의 교육 역시 이제는 이런 방향의 수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형 교육으로의 기회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울산의 자연 자원을 교육의 장으로 확장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탐구하며 배우는 '삶 중심 프로젝트형 교육'이 그 해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에서 본 체험형 과학교육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과 시민이 직접 체험하며 놀이처럼 과학을 배우는 구조는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울산의 산업 기술과 과학 역량을 시민과 공유하고,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울산도 '과학문화도시 울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니가타 방문은,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삶과 연결된 배움'에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일본 연수가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울산의 교육정책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권순용 교육부위원장

4박 5일간의 일본 국외연수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행정과 문화를 교류하는 자리를 넘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고, 시민 중심의 의정문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나노가와 워터셔틀 체험이었습니다. 워터셔틀을 타고 도시를 따라 흐르는 강 위를 지나며, 니가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이 스며든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워터셔틀은 단순한 관광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삶과 문화를 잇는 일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변에서는 거리 공연과 야경이 어우러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과거 제가 참여했던 태화강 폰툰보트 시범운행이 떠올랐습니다.

울산의 태화강도 시나노가와강과 같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폰툰보트도 이러한 시나노가와강의 문화 콘텐츠와 접목된다면, 지역 시민의 교통수단이자 관광 콘텐츠로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폰툰보트를 활용해 도시 주요 지점을 연결하고, 야간 경관과 공연을 결합한다면 울산을 수상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니가타시의회를 방문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시민 참여의 힘' 이었다. 시민들이 언제든 정책과 예산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회가 교육과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을 넘어, 시민과 함께 도시를 설계하는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니가타시의원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시의원의 품격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울산시의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울산시의회는 ‘열린 의회’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제안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청소년 모의의회와 시민 토론회를 통해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니가타 방문은 그러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명확합니다. 태화강이 울산의 자연을 품은 문화의 강, 시민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삶의 무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의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의 자연과 문화, 시민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김종섭 의원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했던 일본 니가타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고요함 속에서도 도시는 느긋하고 여유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니가타시의회 방문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니가타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울산과 달리 교육만이 아닌 경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울산시의회 역시 교육정책을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시민과 함께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나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빛의 숲학교 방문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을 교실 삼아, 흙을 만지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스스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지시하지 않고, 아이들은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에서, 지식 전달이 아닌 자유롭고 생명과 함께하는 배움의 기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놓치고 있는 본질을, 작은 대안학교에서 다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한일 한가위 축제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문화로 만나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양국의 전통공연이 번갈아 무대에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니가타 시민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함께 공연을 즐기며

문화가 주는 감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노가와 워터셔틀 체험은 이번 연수의 감동을 정리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위에서 바라본 니가타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은 워터셔틀을 단순한 관광 수단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마다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도 폰툰보트와 연계한 생태체험 및 문화·교육 콘텐츠로 확장한다면, 단순한 풍경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배움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니가타 방문은 울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삶이 곧 교육이 되는 도시,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과 생태도시 문화를 실현하는 울산의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김수종 의원

지난 9월, 4박 5일간 일본 니가타를 방문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은 도시가 시민에게 배움을 되돌려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며 자연과 일상, 산업과 관련된 과학의 신비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화석과 실제 운석을 직접 만져보는 체험도 가능했고, 일상 속 사물을 활용해 과학적 개념을 흥미롭게 전달하는 전시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울산과학관 역시 지역 산업과 청소년 진로교육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차량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체험 전시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빛의 숲학교에서는 교실의 벽이 없이 자연이 곧 교과서가 되는 배움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 토론하며 계절마다 다양한 학습을 이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생태교육과 대안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느꼈습니다.

한일 한가위 축제에서 니가타 시민들의 모습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의상과 일본의 축제가 한데 어우러지고, 울산 공연단과 일본 공연단들이 함께 공연을 준비하며 국경을 넘어 문화로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로 이어지는 교감 속에서 진정한 교류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노가와강 위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미소였습니다. 아이들은 워터셔들에서 강과 도시를 배우고, 어른들은 저녁노을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이 곧 일상이고, 일상이 곧 문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울산 또한 강과 바다와 산, 천혜의 자연에 둘러싸인 도시로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 일본 니가타 방문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과 환경, 문화,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 문석주 의원

2025년 교육위원회 국외연수는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하여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니가타시의회, 빛의 숲학교를 공식 방문하였고, 한일 한가위 축제에 니가타시의회를 통해 초청받아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하루 일찍 귀국해야하는 상황이라 시나노가와 워터셔틀은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경험을 통해 느낀 바에 따르면, 울산의 중심을 흐르는 태화강도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학습 공간이었습니다.

울산은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지만,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울산의 뛰어난 산업기술이 생활 속 과학문화와 연결된다면, 울산은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배움과 교육의 도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울산과학관에도 언젠가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과 같은 체험형 공간이 더 많이 마련되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산업과 과학을 배우는 날을 기대합니다.

빛의 숲학교에서는 교실 대신 나무와 새소리가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이 키우는 식물을 관찰하며, “나와 같이 자라요”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자

신이 속해있음을 체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모습에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일 한가위 축제의 현장에서는 국경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어떤 정치 회담보다 따뜻한 외교를 보여주었고, 문화가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이 앞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할 때, 중심에 문화와 시민의 참여를 두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문화·생태·교육·국제교류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니가타시에서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울산이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